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Eulogy for the Human Race of Ideas

金琪碩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by Kim, Ki-Suk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전의 나와 다소 달라진 기분을 가지고 있고, 일하며 생각은 안하며 살리라 마음먹고 있다. 그런데 일하며 생각하며 글을 쓰라니 곤란한 일이다.

생각이 인간의 활동중에서 두 말할 나위없이 가장 중요한 활동임에 이견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생각을 한다는 자각증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양의 지혜가 도달한 가장 놀라운 발견이다.

생각이 말 달리듯 기운차게 달린다거나, 탱크가 진진하듯 요란하게 쿵쾅거리며 나아갈 때에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때 대부분 인간은 고통과 파괴를 준비하고 있거나 과대망상의 공중누각을 굳건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징조인 것이다.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의 생각이 말뚝처럼 달려가거나 전차대의 행렬처럼 기세좋게 진군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집단적인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별수없이 칭찬듣기를 좋아했던 나는 위인들이 남긴 말들은 대체로 유익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여 조금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흠모하고 추종하였는데, 스승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맹랑한 잘못된 “생각하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교훈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니 생각하라... 갈대가 아니더라도 생각하라...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쓰면 쓸 수록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녹슬고 둔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머리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대단히 예민했던 나는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행했다. 나는 밤낮으로 깊이 생각에 몰두했다. 어디서나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잠이 드는 것마저 두려웠다. 왜냐하면 잠잔다는 것은 곧 생각의 중단을 의미했고, 죽음과 같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꿈 속에서도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가 그동안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가웃거리곤 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침내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이 되었다.

번뇌.....생각의 끝은 번뇌로 마감되며 번뇌의 잔해로는 죽음이 기다린다. 이것이 죽어라고 생각하는 프로세스의 전부인 것이다.

대체로 서구적 교육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오류를 범해 왔다. 그들은 두뇌를 확대하는 방법을 열심히 권장해 왔는데, 그 결과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자살로 인도하였으며, 자살을 할 용기나 이론적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서 최소한 임포텐스나 우울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때 해답이 있는가?

해답은 있다.

해답은 무엇인가?

해답은 이것이다.

-생각을 함에 생각하지 않는듯이 한다.

無爲而無不爲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無念而無不念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피를 내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또 생각을 쥐어짜내는 능력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 우주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섬세하며 가장 진화된 물질인 뇌신경세포의 덩어리를 빨래짜듯이 쥐어짜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좋은 생각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며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애써 조작한 생각은 나쁜 생각일 수 밖에 없고 파괴적이며 천기를 거스리는 지능이 된다. 좀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좌뇌적 사고(左腦의 思考)만을 통하여 우뇌적 해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다. 우리들의 이성이라는 것은 좌뇌적 사고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것으로 확인, 검토 등의 논리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도구이지만, 무한한 지성의 뿌리와 연계되는 참된

무릇 예는 충과 신이 희박해짐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모두 재난의 시초이다. 남보다 먼저 안다는 것은 도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불과하며 타인을 우매하게 만드는 시초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돈후한 도에 처하여 얇은 예를 지키지 않으며, 실질적인 열매를 중시하고 허황된 꽃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장부는 인위적인 꾸밈을 버리고 무위자연을 택한다...

지혜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애당초 가지고 있지 않다. 지혜는 청명한 직관의 산물이며 우뇌적(右腦的)사고의 성과물이다. 그런데 서구문명사는 좌뇌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현대의 산업사회가 좌뇌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은 생각마저 조작할 수 있다는 불경한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이다.

결국 그러한 오류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사고능력의 절벽끝으로 스스로를 몰아오고 말았다. 남은 것은 추락뿐이다.

해답은 없는가?

해답은 있다. 우리 동양인은 애초에 그 해답에서 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태초의 지혜를 현실적 사고의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 그 이상적 사고작용을 옹계 사용하는 방법은, 문제를 확인하고 검색하는 작업에 한정시켜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다. 이성불필요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그에게 맡기고 나서, 해답을 내는 기능은 우뇌에 맡기는 것이 옹계 생각을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해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해답이 저절로 익어서 나오기도 전에 껍을 내어서 그것을 조작하려함이 바로 어리석음이며, 그 어리석음이 무명(無明)이며 악(惡)의 정체이다.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무명은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본질의 세계, 절대계(絕對界)에 한한 일이지, 결코 이 사바(娑婆)의 현실세계에 그런 선지식(善知識)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나쁜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며 좋은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강아지는 강아지이고 고양이도 고양이 입에라!

上德不德，是以有德。

不德不失德，是以無德。

덕이 뛰어난 자는 덕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덕이 있는 것이다.

덕이 낮은 자는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덕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다운 미덕이라면 생각 또한 그러하다.

上德無爲而無以爲。

不德爲之而有以爲。

덕이 뛰어난 자는 무위자연을 따른다.

덕이 낮은 자는 인위적으로 꾸민다.

上仁爲之而無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인이 뛰어난 자는 인위적으로 인을 베풀지 않는다.

의가 뛰어난 자는 의식적으로 의를 실천한다.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乃之。

예가 뛰어난 자는 스스로 예를 행하면서 타인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팔을 잡아 끌면서 예를 지키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도가 없어지자 덕이 있게 되었고, 덕이 없어지자 인이 있게 되었고, 인이 없어지자 의가 있게 되었고, 의가 없어지자 예가 있게 되었다. 무릇 예는 충과 신이 희박해짐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모든 재난의 시초이다. 남보다 먼저 안다는 것은 도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불과하며 타인을 우매하게 만드는 시초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돈후한 도에 처하여 얇은 예를 지키지 않으며, 실질적인 열매를 중시하고 허황된 꽃을 중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장부는 인위적인 꾸밈을 버리고 무위자연을 택한다...

노자(老子)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건축을 하는 방법과 자세마저 가르치고 있다. 도덕경에서 그는, 헛된 관념을 떠나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치에 눈뜨는 지혜를 설파하는 것이다.